



국내 최대 규모의 재개발 아파트 현장! 자율안전문화 꽃 피어

삼성물산 건설부문 상도4 재개발 아파트 현장



▲ 주재완 소장

겨울을 맞이하려는지 짐짐마다 분주하다. 겨울 맞이 중 연중 행사로 치뤄지는 김장 문화는 우리만의 맛인 듯하여 찬바람에 고무장갑끼고, 배추와 씨름하는 어머니의 모습이 정겹다.

우리가 겨울맛이를 하듯 이번 겨울에도 무재해 현장을 만들기 위해 분주한 곳이 있다. 대지면적 25,000평, 아파트 28개동의 1,656세대의 대형 아파트 현장인 삼성물산 건설부문의 상도 4구역 재개발 아파트 현장(주재완 소장)이 오늘 찾은 곳이다.

그 동안 동탑산업훈장을 비롯하여 노동부장관상, 구청장상 등 안전보건과 관련한 다수의 수상 경력을 가지고 있는 주재완 소장과 안전관리 모범현장상 3회, 자율안전인정현장 2회 지정 등의 실적은 상도 4구역 재개발 아파트 현장의 안전수준을 짐작케 한다.

1978년부터 삼성건설과 인연이 되어 25년동안 20여개 현장에서 무재해의 노하우를 길러온 주재완 소장은 기본과 원칙이 자율안전관리현장 구현을 위한 최상위의 지침이며, 자율안전관리 현장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관리감독자는 동, 서, 남, 북에서 근로자를 보호해



야 한다』라는 말을 자주 강조한다. 근로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마음가짐을 마음속에 품고 실천해야 하는 것이 관리감독자이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안전이 준비된 상도 4구역 현장

상도 4구역 현장은 초기 토공사시 토사 반출량만 약 1,600,000m³으로 도심지 최대 현장이다. 그러나 그만큼 우기철 위험에 노출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현장에서는 전문가로 하여금 역대 주택건설 현장 최고의 수준인 우수 100,000ton을 담수할 수 있는 능력의 사전계획을 수립하고 청타지(10×10m)를 1,500장 이용하여 사면과 침사조를 설치하였다.

그러나 대규모 시설도 자연의 힘 앞에서는 무서움에 떨 수밖에 없었다.

지난해 여름 새벽에 시간당 100mm의 폭우가 쏟아졌고, 모든 침사조는 범람 위기에 처해, 그중 1개 저수조의 독에 크랙이 가는 사건이 발생했다. 평소 위급 상황시 대처 훈련을 해온 터라 6명의 직원과 10여명의 협력사 직원 및 장비가 즉시 투입되었고, 폭우를 맞으면서 철야로 펌핑하고, 신속히 복귀해 무사히 넘길 수 있었다. 단순히 위급 상황을 넘겼다기보다 준비된 시설과 응급조치 훈련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그 이후 상도 4구역 현장은 안전관리 우수현장으로 지정되는 등 오늘의 자율안전현장으로 무재해를 지속적으로 이끌어가고 있다.

일일 시공 사이클에서 시작되는 무재해

상도 4구역 현장은 일일 시공사이클을 운영하고 있다. 이는 품질뿐만 아니라 안전한 작업 수행을 위해 운영되는 제도이다.

아침조회 후 TBM을 이용하여 그날 작업에 대한 “작업 일보”를 공유한다. 일보에는 그날 공정에 대한 내용과 더불어 위험포인트, 대책에 이르기까지 기록되어 그날 작업에 있어 안전작업의 방향을 제시해 준다. 이후 신규채용자 관리와 오전·오후 Patrol를 거쳐 품질안전공정회의를 하고, 정리정돈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무재해 운동이다.

일일 시공 사이클 기법이 현장에 정착되기까지는 직원과 현장근로자와의 사소한 마찰이 있기도 하였으나,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궁극적인 목적앞에 자율적으로 시행되는 기법으로 정착되었다.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연구·개발하는 삼성

건설현장에서는 추락재해 등 재래형 재해 근절을 위해 혈안이다. 열 사람이 한명의 도둑을

건설안전리포트

못잡는다는 옛말처럼, 아무리 감시하는 사람이 많아도 100%의 사고예방은 장담할 수 없다. 그러나 상도 4지역에서는 100%의 사고예방을 위해 마네킹을 이용한 추락재해 체험을 통해 안전의식을 갖게 하고, 감전 재해예방을 위하여 매월 전기공도구 점검을 통해 성능이 떨어지거나 파손된 전기공도구를 즉시 교체하고, 감전보호용 고무캡을 지급한다.



특히, 협착재해와 절단재해 예방을 위한 밴딩기 센서와 자동톱의 도입이 인상적이다. 평소 철근 작업과 목재절단 작업시 협착 및 절단 위험을 걱정하여 새로운 밴딩기에 센서를 부착한 새로운 밴딩기를 개발하였고, 목재용동근톱도 사람의 손이 닿지 않고 자동적으로 작동하는 전기톱을 현장에 도입한 것은 김도식 안전과장의 끊임없이 관찰하고 연구·개발하는 자세에서 비롯된 것이다. 타현장, 타회사에서 벤치마킹을 위해 이곳을 찾는 것도 근로자 안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연구·개발하는 이들이 있어서일 것이다.

이 밖에 올해 4살짜리 캐릭터 품안이가 현장을 누비며 품질, 안전, 환경에 있어 파수꾼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비롯해 협력사 소장이 주축이 된 자율안전점검단의 운영, 안전을 위해 작업을 통제하는 S-PAR, WORK-STOP제도 등으로 무재해 현장 꾸미기에 여념이 없다.

특히 주목할만한 점은 근로자의 건강관리인데, 건설현장 최초로 현재 50%의 근로자가 참여하는 금연운동을 꼽을 수 있고, 철저한 신규근로자에 대한 건강검진 또한 여느 현장에서 볼 수 없는 것들이다.

끝으로, “항상 등 뒤에 가족이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자신을 아끼고 동료들을 아끼는 마음으로 상도 4구역 재개발 아파트 현장이 준공되는 그 날까지 무재해로 마무리할 것을 근로자에게 전하는 주재완 소장과 『힘든 부분은 눈앞에 보이는 것이지만, 보람이라는 것은 눈앞에 보이지 않습니다. 안전 또한 눈앞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니, 결과물이 없다면 힘들어하지 말고, 근로자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안전활동에 임해 주세요』라고 말하는 김도식 안전과장에게서 현장이 준공되는 그 날까지 무재해 꽃을 피울 의지가 느껴진다.

〈최종덕 기자〉

